

청두시 교육국 대표단, 경기도교육청 방문

청두시 교육국 대표단, 경기미래교육 관심 방문 요청해 성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9일 남부청사에서 중국 사천성 청두시 교육 최고 책임자인 스빈(石斌) 총독 학(학관급)을 비롯한 교육국 정책 핵심 인사들에게 경기미래교육 정책을 소개했다.

이번 방문은 도교육청이 오는 11월 14일부터 양일간 운영하는 ‘웰컴 투 경기교육 연구 페스타(FESTA) 2025’에 참여를 희망하고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한 청두시 교육국 요청으로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청두시 방문단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연구회 운영 ▲경기교원 디지털역량강화 과정 ▲경기온라인학과 ▲하이러닝 등 핵심 교육 정책을 안내했다. 이어 수원 외국어고를 방문해 인공지능(AI) 활용 수업을 참관했다.

송민수 기자

이날 도교육청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환영사에서 청두를 사랑한 시인 두보의 시 ‘춘야희우(春夜喜雨)’의 ‘좋은 비는 때를 안다(好雨知時節)’는 구절을 인용하며, 양 도시 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협력을 약속했다.

이어 김 부교육감은 “학생 맞춤형 학습, 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수업, 프로젝트·탐구 수업, 다문화·다언어 역량 교육이 세계 미래교육의 핵심”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청두시 교육국과 함께 이 흐름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향후 청두시 교육국과 ▲교사 상호 방문 연수 ▲공동 교육과정 개발 ▲하이러닝 인공지능(AI) 활용 ▲온라인교육 등 미래교육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파주시,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파주시는 최근 운전지구 일대에서 발생한 탁수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강력한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9~10월 두 차례 발생한 탁수 사고를 계기로 교하배수지를 중심으로 한 광역상수도 공급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실시간 수질계측장비가 포함된 자동 배수(드레인) 시설 4개소와 수도 배수(드레인) 시설 2개소 등 총 6개소에 ‘수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자동 배수(드레인) 시설은 관로 내 수질이 기준치를 벗어나거나 탁도가 상승할 경우 자동으로 탁수를 배출해 수질 악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로, 인력 투입 없이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 하다.

이번 사업에는 총 7억 6,500만 원이 투입되며, 관말부 퇴적물을 제거하고 저유속 구간인 유수 순환 체계를 강화해 상시 수질 점검을 통한 안정적인 급수 공급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파주시는 이를 통해 교하 급수구역(운정신도시, 야당·상지석동, 교하동 등)의 수질 안정성을 높이고, 앞으로의 탁수 사고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는 ‘스마트 수질관리 시스템’ 기반을 마련해 시민의 신뢰 회복과 상수도 관리의 선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은 오는 11월 발주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사 전까지는 주요 지점별로 통합 이도 작업을 병행해 수질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연결도로 신설·확장 순조



50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도 입주하게 된다.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첫 번째 팹(Fab)은 2027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대한민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시설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교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2차로인 지방도 318호선을 6차로로 확장(3.4km)하는 것을 비롯해, 국지도 57호선 2차로→4차로 확장 및 선형변경(2.9km), 보개원삼로 2차로→4차로 확장(1.8km), 산업단지 주출입도로 4차로 신설(1km) 등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설 주출입도로 2차로와 선형 변경과 확장 중인 지방도 318호선의 2차로를 10월 말 임시 개통하고, 세종~포천고속도로의 남용인IC가 개통되는 연말에 각각 4차로를 개통할 예정이다. 지방도 318호선의 나머지 2개 차로는 내년 초 전 구간이 개통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원삼면에 조성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은 이동·남사읍에 조성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함께 대한민국 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용인을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시킬 핵심 자산”이라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 시민들이 보다 나은 교통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도로망·철도망 등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지페어 코리아 2025’ 개막…유망기업 502개사 참여

30일 제28회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G-FAIR KOREA 2025)’ 개최

사흘간 뷰티·패션, 식품 등 5개 테마로 502개사, 572개 부스 운영

무역위기 대응존, 해외시장 진출 세미나 등 중소기업 수출통상 적극지원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 확대와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수출전문 전시회 ‘제28회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G-FAIR KOREA 2025)’가 30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올해로 28회를 맞은 ‘지페어 코리아(G-FAIR KOREA) 2025’ 개막식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심홍순 도의회 미래위 부위원장과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 방세환 광주시장, 김현권 경과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 출장중인 김동원 경기도지사를 대신해 개회를 선언한 김대순 2부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경기북부의 중심에 지페어가 항상 함께 해왔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기업과 바이어가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막식에서는 참가기업 중 상위 30개 사의 우수제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지페어 어워즈 시상식도 동시에 진행됐다.

올해로 9회째 참가하는 ㈜한국미라클피플사는 비건 인증과 독일 더마테스트를 획득한 친환경 쉘솔텍세제를 선보이며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지페어 코리아는 ‘Buy Better, Live Better!(잘 사면 잘 산다)’를 슬로건으로 유망 수출중소기업 502개사와 국내외 45개국 815명의 바이어가 참석,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전시회는 뷰티·패션, 식품, 생활용품, 건강, 테크 5개 테마로 구성되며, 특히 ‘무역위기 대응존’을 신설, 최근 미국 관세조치 시행 등 보호무역주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구성했다.

30일부터 이틀간 해외 바이어와 기업 간 1:1 매칭 수출상담회가 진행되며, 국내 대형마트 및 온라인몰 유통 상품기획자(MD)들이 참여하는 구매상담회도 동시에 열린다.

또한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소장단이 참여하는 ‘경기 글로벌 수출전략회의’를 개최, 현지 지원체계 강화와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페어 코리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시회 사무국(031-259-6531~4), 또는 누리집(www.gfair.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민수 기자

‘2025 경기도동계체육대회’ 겨울 스포츠 축제 열린다

빙상·아이스하키·컬링 등 3개 종목, 초·중·고·대학·일반부 선수 및 동호인 참가

도민 참여 확대, 우수 선수 발굴, 화합 도모 기대



표로 추진됐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도민들이 동계스포츠를 보다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다양한 종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수 선수 발굴과 경기력 향상은 물론, 도민 화합에도 크게 기

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동계체육대회는 17개 시·도에서 유일한 동계종목 종합 체육대회로, 경기도가 동계종목의 메카이자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경기종별 전문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동호인도 참가할 수 있어, 도민 누구나 겨울 스포츠를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대회 개최식은 10월31일 11시부터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리며, 최다빈 前 여자 피겨 선수의 축하공연(피겨갈라쇼)도 선보일 예정이다.

송민수 기자

제8회 안양시 유망기업 조찬간담회 성황리 개최

안양 기업인 170여 명 한자리에…대내외 불확실성 속 상생 해법 모색



명해 지역 기업인들에게 깊은 영감을 선사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오늘과 같이 기업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지역 경제 성장과 혁신에 매우 중요한 요

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 기업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대상 맞춤형 컨설팅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12월까지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축 안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3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의 건축물이 대상이다. 공동주택과 집합건축물은 제외된다.

수원시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자문단 전문가가 현장에서 건축물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부동 침하(不同沈下), 주변 옹벽과 담장 안전 상태, 비구조체 결합 여부 등을 육안으로 점검한다.

1차 점검 결과, 위험성이 높은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에서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에너지 성능 등 39개 세부 항목을 정밀 점검한다.

관리부서에 점검 결과를 알리고, 관리부서는 소유자에게 결과를 안내해 자율적인 유지관리와 보수를 유도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성남시, 정보보안 관리실대

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경기도의 정보보안 관리실대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1위)으로 선정됐다 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의 정보보안 정책, 정보자산 보안관리, 사이버 위기관리 등 80개 항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성남시는 주기적인 정보시스템 보안 점검,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한 보안 점검과 대응 훈련, 전 직원 대상 정보보안 교육을 통해 정보보안 의식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신종 악성코드 감염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 개선 등 정보보안 수준을 강화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맞물려 사이버 위험이 다변화·고도화되고 있다”면서 “대응력을 높여 시민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정보보안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태화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국비 5억 확보

광주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관의 녹색 인프라 확충 공모에서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분야에 최종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산림복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산림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태화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국비 5억원, 시비 5억원) 규모로, 총연장 1.3km 구간에 노약자·장애인·어린이 등 보행 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선정은 광주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산림복지 기반 확충 정책의 성과”라며 “유정 호수길, 유아숲체험원, 무장애 나눔길 이 하나의 복합 산림복지 벨트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와 설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내달 6일 킨텍스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고양특례시는 다음 달 6일 오후 2시 킨텍스에서 2025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박람회는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과 중장년 구직자 간 효율적 일자리 매칭과 함께 구직자의 주요 충격을 위해 채용관, 취·창업 컨설팅관, AI·디지털 특화관, 일자리 정보관, 기업 라운지, 힐링·체험관 등 모두 6개 테마관을 운영한다.

채용관에서는 반도체, 의료바이오, 식품 제조, 물류·운수, 방송·전시기획 분야 35개 기업에서 149명의 채용을 위한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디자인, 회계, 사회복지사, 헤드헌터, 전시 기획 등 중장년 구직자가 전문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직종부터 운전, 배송, 조리, 생산, 요양보호 등 유망한 일터에 재취업할 수 있는 직종까지 구인·구직이 이뤄질 예정이다.